

#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진실 규명 동시 추진

## 수색 늦어져 병행키로

## 2~3일내 침로기록장치 확보

## 6월 20일 공식 조사 돌입

세월호 참사 의혹을 밝히는 사고 조사 활동도 본격화된다. '미수습자 수습'과 '진실 규명'이라는 두 트랙을 동시에 전개한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미수습자 수색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 사고 조사에 나서지 않았지만, 수색작업이 예상보다 더디지면서 사고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김철승(목포해양대 교수) 위원은 23일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선체 내부 수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사고 조사를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

어 조타실로 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체조사위는 그동안 미수습자 수습에 전력을 기울였다. 미수습자 수습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 진상규명 조사는 착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내부 수색이 더디지면서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조사를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선체조사위는 인양 지원, 진실 은폐, 선체 훼손 등 그동안 제기된 세월호 참사 의혹을 본격 조사한다.

먼저 세월호 참사 당시 조타수가 세월호를 어떻게 운항했는지를 보여줄 조타실 내 침로기록장치(코스레코더)를 2~3일 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리아살배지 측과 진입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장치는 선박의 진행 방향과 방위 등을 선체가 자동으로 종이에 기록하는 것으로, 세월호 당시 선체의 진행 방향을 확인

해 레이더가 외부에서 기록한 세월호 운행 방향 자료와 비교할 수 있다.

세월호는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선박항해기록장치가 없어 항로를 기록해 주는 침로기록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체조사위가 찾는 것은 침로기록장치가 인쇄한 기록지다.

하지만 세월호가 3년간 바닷물 속에 잠겨있었던 터라 기록지가 제대로 남아있을지, 남아있더라도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훼손됐다면 복원은 가능한지 등 변수는 남아 있다. 그렇지만 이 기록지가 진상규명의 실마리가 될 수 있어 조타실에 빨리 접근해 기록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선체조사위는 앞서 미수습자 가족과 조타실 진입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현재 조타실로 향하는 진입로가 없어 사다리 설치 등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또, 선체조사위는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된 이유와 인양과정에서 세월호 선체에 뚫은 140여개의 구멍과 세월호의 평형을 유지하는 스테빌라이저와 앵커를 떼어낸 과정과 잭받바지선이 세월호를 들어올리지 못하자 절단한 좌현 램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였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철승 위원은 "조타실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중요한 장소"라며 "현재까지 조타실 말고는 다른 곳은 진입이 힘들다. 이곳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다음달 8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돼야 예산이 확보되고, 6주간 공고기간을 두고 조사관을 뽑을 수 있다"며 "빠르면 오는 6월20일경 공식적으로 6개월간의 선체 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세월호 우현 향하는 해경 과학수사대 23일 오후 해양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의 우현으로 가기 위해 워킹타워를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일반인 승객 머문 3층 객실 본격 수색 법원 “숨진 교사 순직군경 예우해야”

### 선체 추가 천공 검토

세월호에 탑승한 일반인 승객이 머문 3층에서도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3층 선수에 진출입로를 확보해 지장물을 제거한 후 일반인 승객이 머문 객실을 수색할 예정이다. 세월호 상부(우현) 3층과 4층 부분에는 내부 진입용 비계(가설 사다리)도 설치됐다. 비계를 통해 상부에서 일반인 승객이 머문 3층과 4층으로 진입할 계획이다. 이미 열린 공간인 개구부 2곳을 통해 3층 선미에서도 진입할 예정이

다. 4층 바닥과 3층 천장을 관통하는 곳에도 진출입로를 확보해 이곳으로도 진입해 수색할 것으로 보인다.

진출입로 크기도 가로 1.2m에서 2.4m(세로 1.5m)로 늘어났다.

해양수산부와 선체정리업체 코리아살배지는 당초 3개월간 수색작업을 진행해 7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작업 속도가 늦어지자 선체에 추가로 천공(구멍 뚫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미수습자 가족들도 선체절단을 최소화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벗어나 선체절단을 포함한 제2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순직공무원 보다 예우 격상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4월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다 제자들의 시신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는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이듬해 2월 자신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는 건의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이씨가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아내도 순직군경유족이 아닌 순직공무원 유족으로만 등록한다고 처분했다.

이씨는 인천보훈지청의 처분에 불복해 2015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0 해질 19:12 달뜨기 04:27 달지기 16:39

#### 새벽안개 주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9/24	보통	성남	9/24	보통
주요	10/21	순천	10/21	순천	8/21
여수	11/20	영광	11/20	영광	5/22
나주	4/23	진도	4/23	진도	5/21
완도	10/20	전주	10/20	전주	8/24
구례	4/23	군산	4/23	군산	7/21
강진	7/21	원주	7/21	원주	4/23
해남	5/21	홍산도	5/21	홍산도	9/17
장성	5/23				

#### 바다 날씨

시해	남부	남해	남해(동)	남해(서)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동~남	남동~남	남동~남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부	남동~남	남동~남	남동~남	남동~남	0.5~1.5	남동~남	0.5~1.5	
남해	남동~남	남동~남	남동~남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해(동)	남동~남	남동~남	남동~남	남동~남	0.5~1.5	남동~남	1.0~2.0	
남해(서)	남동~남	남동~남	남동~남	남동~남	1.0~1.5	남동~남	1.0~2.0	

#### 생활지수

관심	식중독
높음	자외선
낮음	피부질환

#### 주간 날씨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5/1(월)
☁	☁	☁	☁	☁	☁	☁
12/20	13/21	9/20	8/20	10/22	11/23	12/23

## 황금연휴는 천혜의 '남도 국립공원'에서

### 사진전·음악회 등 행사 다채

5월 황금연휴 기간 남도의 국립공원에서는 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23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따르면 무등산국립공원 중심지구(만영탐방지원센터)에서는 8일부터 14일까지 국립공원 사진전이 열린다.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전국 국립공원의 모습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전시다. 14일 중심지구에서는 숲속 작은음악회라는 이름의 음악회도 열린다.

월출산 천황야영장에서는 6일 숲속 작은음악회가 개최된다. 같은 장소에서

는 1일부터 14일까지 국립공원사진전도 진행된다.

다도해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13일 고흥 팔영산자동차야영장에서 숲속 작은음악회를 연다. 1일부터 14일까지 팔영산자동차야영장, 목포연안터미널에서도 국립공원사진전이 진행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5월 황금연휴에 맞춰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30주년, 국립공원지정 50주년을 기념해 국내 관광산업에 활력을 주려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많은 시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 광주교육청 공무원 시험 경쟁률 37.5대1

광주교육청은 36명을 선발하는 2017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총 1351명이 접수해 경쟁률 37.5대 1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23.5대 1에 비해 높아진 수준이다.

직렬별(9급) 접수 인원과 경쟁률을 보면 교육행정(일반)은 27명 선발에 1212명이 접수해 44.9대 1, 교육행정(장애인)은 2명 선발에 24명이 접수해 12대 1, 교육행정(저소득)은 1명 선발에 27명이 접수해 27대 1을 기록했다.

공업(일반전기)은 1명 선발에 38명 접수해 38대 1, 시설(건축)은 4명 선발에 35명이 접수해 8.8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공업(일반기계) 1명 선발에 15명이 접수해 경쟁률 15대 1을 기록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며, 6월17일 필기시험과 7월27일 면접시험을 거쳐 8월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The 18th  
2017 Jangseong  
Hong Gildong  
Festival

기간 2017.4.22.(토) ~ 4.30.(일)/9일간  
장소 황룡강변(공설운동장)/홍길동테마파크

## 제18회 전남 장성

# 홍길동 축제

주최 Jangseong  
주관 장성군 축제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